

09 2014
vol. 358
www.mise1984.com

SINCE 1984 · Monthly Art Magazine

美術世界

Cover Artist 박상우

Special 현실과 예술 ③ 커뮤니티+아트



9 77 1227 606504 09
ISSN 1227-6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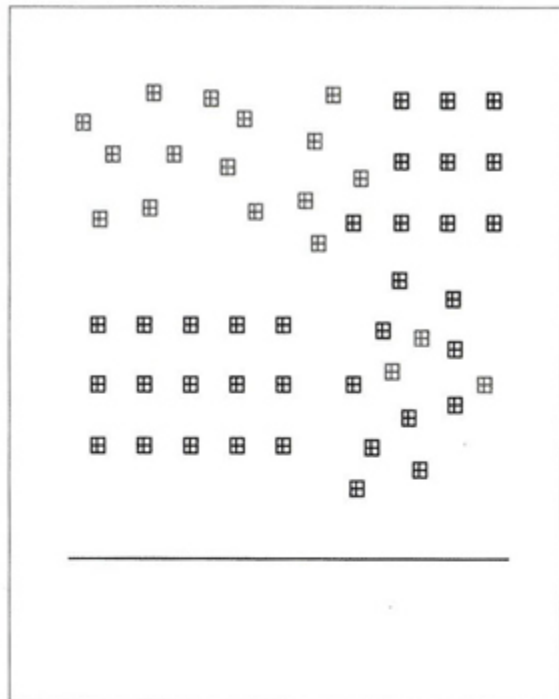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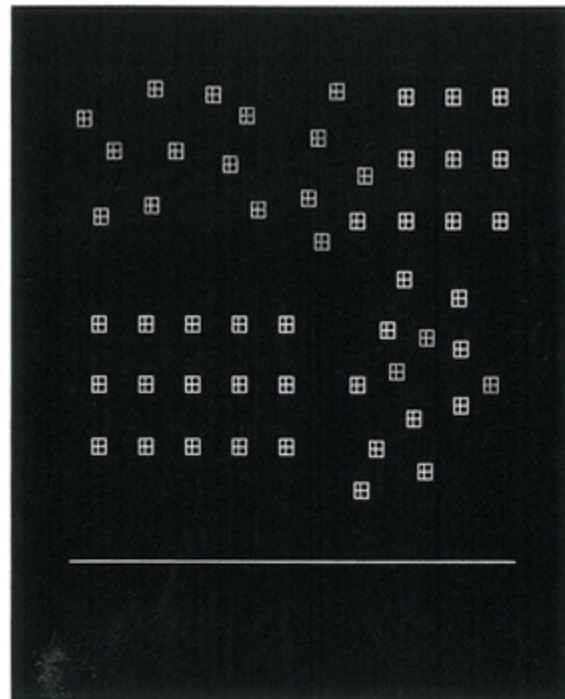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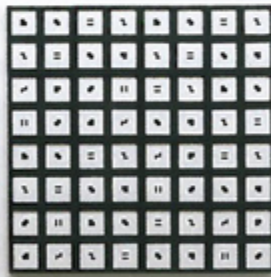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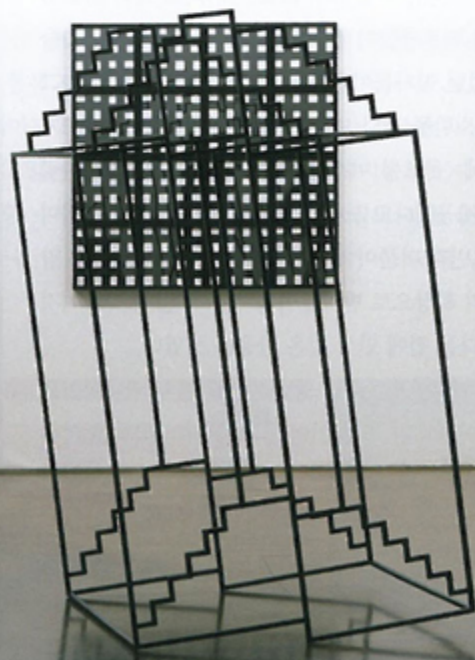
월간 미술세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0년도 우수콘텐츠 잡지,
제1회 문화관광부선정 우수 잡지, 제39회 잡지의 날 대통령상 수상

픽셀적 회고

홍승혜 《회상》 / 7.10~8.17 / 국제 갤러리

사각형의 질서를 통해 살아가는 오늘날, 미디어를 지배하는 네모 픽셀이 축소와 확대, 순열과 조합 등의 반복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이미지들로 번식된다. 1997년부터 이어져온 홍승혜의 '유기적 기하학' 시리즈가 흑백의 모습으로 조각 및 평면 영상 설치 등으로 재현되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과거 대표작들을 크기와 재료를 달리해 그레이 스케일로 변주한 1층 전시실과 지난 10년간 제작된 6편의 플래시 애니메이션 <더 센터멘탈> 시리즈를 흑백으로 전환해 한데 묶어 전시한 2층 전시실로 분할되어 있다.

글 | 이지영 기자 | 이미지 제공 | 국제 갤러리



과거에 대한 인용(引用)

흑백 사각형들은 유기적 변형을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지는데 전시장 입구에 수상한 원 두 개가 외부의 빛을 전시장 내부로 끌어들이는다. 밖을 내다보니 2000년에 제작된 타일들을 이용한 홍승혜의 2014년 신작 <Daybed>가 놓여있다. 그리고 다시금 찬찬히 내부를 둘러본다. 어쩐지 내부와 외부에 있는 '원'의 의미가 수상하다.

홍승혜 작품의 근간이 되는 픽셀(Pixel)은 가상에서 재현되는 이미지의 가장 기초적 단위이자 대상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재현으로서의 매체다. 그렇기에 표면적으로는 대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무한대로 확대해 보다 보면 그것들이 작은 사각형(픽셀)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픽셀은 가상의 세계에서 무한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시발점이지만 '홍승혜의 픽셀'은 그러한 태초적 속성보다는 그것들의 '변화에 관한 유기적 실험'의 확장이자, '구체적 사물을 재현하지는 않으면서도 뭔가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 작가는 포토샵을 통해 2차원 컴퓨터 화면에서 우연성에 기반한 픽셀들을 기하학적

인 패턴들로 생성한다. 그렇게 그의 직관에 의해 선택된 패턴은 다시 페인팅이나 벽화, 조각, 가구, 책,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로 확장된다. '홍승혜의 픽셀'은 사각의 그리드 내부를 유영하되 내부에 완전히 전복되지는 않으며 관객, 공간과의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방식으로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들며 조화, 반복, 분해된다. 이러한 유기적 모습에서 관객들은 홍승혜의 작품으로부터 '감정'을 느끼게 되며, 그것들의 확장적 변화를 사유하게 된다.

재현으로서의 매체인 '픽셀'이 지난 작품들에 대한 '또 다른 재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이번 전시 《회상》에서는 1997년부터 이어져온 '유기적 기하학'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작품들을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재생산해냈다. 이번 전시를 두고 작가는 '반회고전'이라 표현하는데 홍승혜의 지난 행보를 떠올려 본다면 '회고전'이라는 명칭에 관해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과거의 작업이 오늘 스스로의 레퍼런스가 되어온 일은 기존의 작가가 꾸준히 취해왔던 작업적 태도다. 또한 이번 전시는 기존의 작업이긴 하나 그것들은 원본이 아닌 작가 스스로에 의해 '변형적으로 카피' 된

왼쪽페이지
홍승혜 개인전 《회상》,
(온앤오프), 설치전경, 2014,
사진 김상태

오른쪽페이지 왼쪽부터
홍승혜, 《유기적 기하학》, 잉크젯
프린트, 40x40cm, black,
2014

홍승혜, 《유기적 기하학》, 잉크젯
프린트, 40x40cm, white,
2014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의 원본에 관한 의미와 자가 복제 등에 관한 현대미술이 안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에 관해서도 화두를 던지고 있다. '신작으로 풀어낸 회고전'인 이번 전시는 회고전이 갖는 통념적인 의미와는 다르지만, "되돌아보니 나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다"는 작가의 고백처럼 현재를 살지만 끊임없이 과거를 살아왔던 홍승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면서도 확고하게 드러내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회상》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작업의 좌표들을 공개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홍승혜의 관심의 이동과 성장에 관한 추적을 한눈에 펼쳐놓는 동시에 작가 스스로에게도 정리와 시작을 함께 환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작들에서는 그간 작품의 감각적 표현의 핵심 요소였던 '색'을 지워냄으로서 과거의 이미지가 되는 메타포로서의 흑백인 '회상의 공간'을 표현했다. 그레이 스케일에 관해 작가는 무성 영화 속 흑백의 장면을 떠올리며 분명 존재했지만 기억으로서만 남겨진 실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한 것이다. 또한 이차원의 평면으로 존재했던 작품들이 삼차원의 공간으로 확장,

변형, 증식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작가의 그간 공간에 관한 관심 역시 진화와 확장이 이뤄졌음이 목격된다.

안무

음악에 대한 미술가들의 관심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한 관심은 20세기 초 오르피즘작가들의 행보에서 보다 뚜렷이 목격되며, 그들은 음악의 울동과 리듬을 상징적 기호와 형태, 색채로 구현해 내는 등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음악과 미술의 서로간 차용의 근거에서 미술의 추상적 표현방식과 음악의 표현방식에서 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음악에서 활용되는 볼륨과 톤, 컬러 등의 용어는 미술에서 함께 공유되는 표현으로서 이는 양측의 추상적 교류가 보다 긴밀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렇듯 기존의 미술과 음악의 연결성은 감상과 표현형식의 차용 등을 통해 다양하게 표출되어 왔다. 홍승혜 역시 자신의 작업에서 음악의 비중이 높다고 밝힌다. 픽셀 추상의 작업방식은 반복, 도치, 역행, 확대, 축소, 혼합 등의 음률적 진행방식을 통해서도 유기적으로 발현되는데, 작가는 2009년 《음

악의 헌정》을 통해 그러한 음악적 영감의 출처를 밝힌 바 있다. 홍승혜가 제목으로서 차용한 '음악의 헌정(A Musical Offering)'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1747년 프러시아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제안한 테마에 기초해 즉흥적으로 작곡한 카논 형식의 변주곡으로서 그의 픽셀들은 '엄격한 모방의 원칙에 의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모방하며 뒤따르는' 일종의 추상적 악보를 완성했다.

홍승혜의 음악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제스처는 2층 전시실에 설치된 《6성 리체르카레》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어두움 속에 자리한 6편의 플래시 애니메이션 《더 센티멘탈》시리즈는 흑백으로 전환되어 한데 묶여 《6성 리체르카레》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 작품의 제목역시 바흐의 모음곡 《음악의 헌정》의 원전에서 차용되었다. 독립성이 강한 두 개 이상의 멜로디가 결합된 대위법을 기초로 한 푸가(Fugue) 형식의 이 작품은 지난 10여 년 동안 각각 다른 시기에 제작된 개별의 작업들이 서로 불협하는 듯 불협하지 않는 오묘한 전개를 이룬다. 2차원 흑백의 사각형들이 형태, 속도, 움직임을 바뀌가며 춤을 추듯 각기 다른 음악과



어우러지고, 극도로 단순화된 이미지는 부드러운 움직임, 음악의 장중함과 결합되어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흡입력을 발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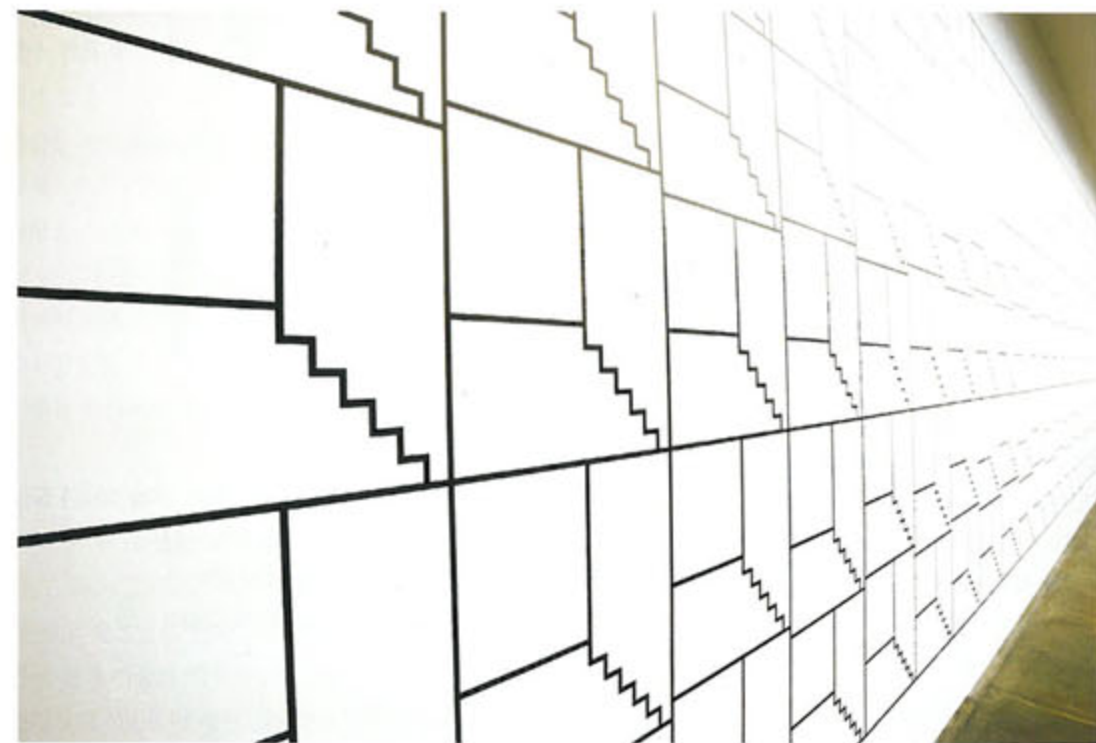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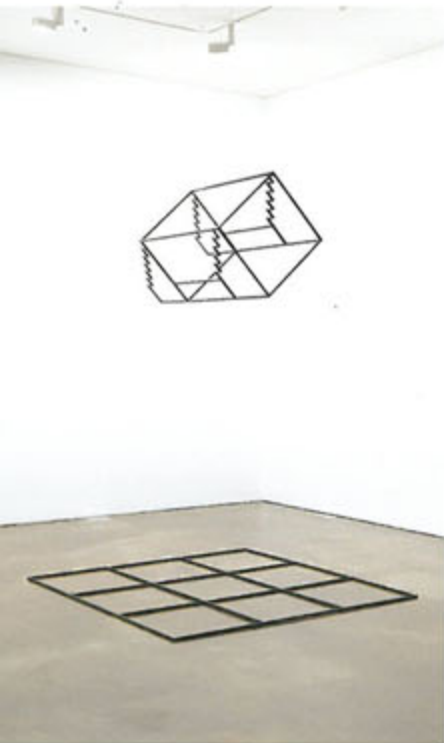
다소 차가운 인상으로 시작되었던 서곡은 이윽고 규칙과 해방이 동시에 발생하는 푸가를 통해 픽셀 각각의 몸짓인 군무를 이룸으로서, 감상자로 하여금 불협 화음에 관한 긴장감과 동시에 해방감을 선사한다. 이때 전시장 입구에 난 구멍이 전시장을 나오는 정면으로 다시금 등장한다. 이는 1990년대에 사용됐던 원형 프레임들을 실제의 공간으로 재현한 것으로 가상과 실제, 내부와 외부, 감상자와 작품, 2차원과 3차원, 미술과 일상의 다양한 변주로서의 통로이자 가능성인 것이다. '가장 최소단위'에서의 출발이 무한한 확장과 변형을 통해 발현되는 이번 전시는 홍승혜가 품은 과거의 모습이자 열려있는 홍승혜의 내일이기도 하다. □

위부터
홍승혜 개인전
《음악의 헌정(갤러리2)》,
《발성연습》, 드로잉, 가변크기,
2009

홍승혜 개인전
《음악의 헌정(갤러리2)》,
《Ricercare 6》, 벽에 스티커,
2009

왼쪽부터
홍승혜 개인전 《회상》,
설치전경, 2014, 사진 김상태

홍승혜 개인전 《회상》,
설치전경, 2014, 사진 김상태



※ 참고자료
『홍승혜의 공간 배양법』,
황인, 신라갤러리 개인전 도록
서문, 2006.
『움직이는 그리드』, 윤난지,
『오늘의 미술가를 말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미술과 음악의 역학관계』,
송미숙, 2009.
『이미지 인문학』, 진중권,
천년의 상상, 2014.